

후지보 - “스쿠와란” 보습가공을 부활시켜

후지보는 10년 전에 개발하여 상품화하였던 “케어트리트먼츠(care-treatments)” 가공을 최근 부활시켰다.

“스쿠와란”은 깊은 바다에 사는 상어에서 추출되는 보습(保濕)성분이다. 이 성분은 피부와의 친화성이 극히 좋아서, 벌써부터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피부에 바르면 아주 잘 퍼져서 얇은 피막(皮膜)을 만드는데, 이 피막이 표피의 세포 중 털이나 손바닥, 발바닥, 손톱 등을 만드는 각질(角質)화 세포층인 각질층(層)으로부터의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 피막성분은 여러 번 세탁하여도 떨어지지 않도록 섬유에 단단히 고착시키는 기술이 “케어트리트먼츠”이다. 이 가공이 근년에 와서는 가공의뢰가 없었으나, 요즘 “케어트리트먼츠”의 감촉이 직접 느낄 수 있을 만치 다르다는 것을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 평가되어 가공의뢰가 다시 늘기 시작하였다.

처음 개발되어 판매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스쿠와란” 가공이 붐을 이루어 팬티 스타킹(panty stocking)이나 속옷 소재에의 가공의뢰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붐이 진정되면서 가공의뢰도 줄었다. 그런데 소매점포에서 각종 기능이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후가공품들이, 표시사항의 확인이 간혹 트러블의 원인이 되자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양판점(量販店)을 중심으로 퍼지자, 이의 반작용으로 소매점포에서도 쉽게 감촉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케어트리트먼츠”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춘하상품 판매경쟁에서는 속옷이나 T-셔츠로써 점포의 판매대에 진열될 예정이다.